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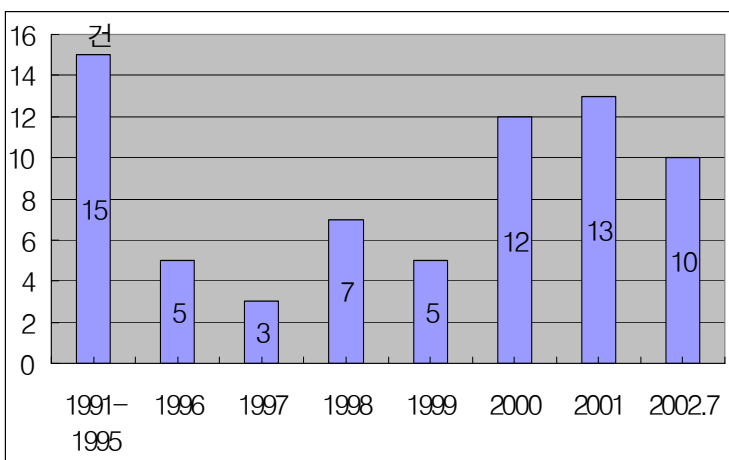
생약 추출물 이용 천식도 치료한다!

특허청, 천식치료제 관련특허 32.3% 차지 ... 부작용 없이 효과 우수

신이(목련 꽃봉오리), 오미자, 상백피 등 천연식물의 추출물을 이용한 천식치료제와 관련한 특허출원이 늘고 있다.

특허청에 따르면, 국내 전체 천식치료제 출원건수 중 생약 추출물을 함유한 천식치료제의 비율이 1997년 이전에는 6%에 불과하던 것이 2002년 32.2%까지 상승해 점점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.

생약 추출물 함유 천식치료제 출원동향



증가하고 있다.

생약 추출물을 함유한 천식치료제 관련기술은 1991-1995년 5년 동안 15건으로 집계됐으나 1999년 5건, 2000년 12건, 2001년 13건으로 증가했으며, 2002년 1-7월에만 10건에 그쳤다.

전체 천식치료제 출원 대비 관련특허도 1997년 이전에는 5.8%였는데 계속 증가했고 2002년 7월에는 32.2%에 이르렀다.

현재 한국신약이 생명공학연구원과 공동으로 신이(목련 꽃봉오리) 추출물을 주성분으로 한 천식치료제로서 대표적인 성공사례로 꼽히고 있는 <아스망정>이 개발되고 제3상 임상시험이 실시되고 있다.

기존 스테로이드제제나 기관지 확장제나 달리 부작용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고 되고 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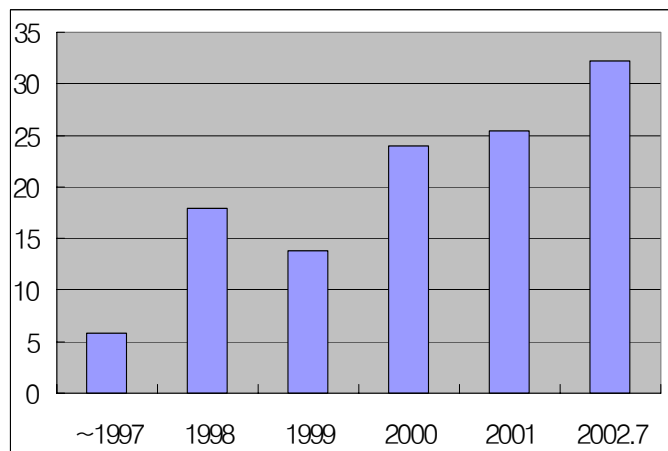
특허청은 생약추출물 함유 천식치료제가 우수한 치료효과를 나타내면서 부작용이 적기 때문에 천식치료제 시장에서 차지하는 점유율이 점점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.

천식이란 인간이 호흡할 때 유입되는 외부 자극물질에 대해 기관지가 과민반응을 일으켜 기침과 호흡곤란이 나타나는 질병으로, 완치가 매우 어려운 만성질환이다.

일반적으로 천식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기관지 확장제, 또는 항 염증제를 사용한 약물요법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나 고혈압, 당뇨, 골다공증, 백내장 등의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고 장기복용하면 내성이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다.

이에 따라 최근에는 생약 추출물을 함유하는 천식치료제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, 관련분야의 특허출원이

천식치료제 관련 출원 동향



<Chemical Journal 2003/12/02>